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 ◆ 일 시 : 2008. 8. 27(水) 15:00
-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실)
-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www.icouncil.go.kr

(문교사회위원회)

목 차

□ 인사말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고진섭).....	5
□ 기조연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배종신).....	7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천의 준비와 전략)	
□ 주제발표.....	18
○ 1주제 :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의동.....	20
(대회성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방안)	
○ 2주제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한구.....	38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 및 참여활성화 방안)	
□ 아시아경기대회 소개.....	53
○ 아시아경기대회 태동.....	55
○ OCA 소개.....	57
○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59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관.....	60
□ 기타 참고자료.....	64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일반현황.....	66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67

인 사 말 씀

고진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결정 자료를 마련하여 시 정부에 제공하고자 지난 4월부터 개최 해 온 정책토론회가 여섯 번째를 맞아 오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 해주신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학계·체육계·시민단체의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우리 인천이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도시 인프라의 확충, 국제화와 국제교류기반 구축, 문화역량 강화와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국제대회 운영능력 제고 등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평화와 화합의 아시아 시대를 만들고 명품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40억 아시아인의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273만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착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제전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기 조 연 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천의 준비와 전략

배 종 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1. 인사말씀

-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고진섭 의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본 토론회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시아경기대회는 인류의 2/3가 거주하는 아시아 대륙 최대의 잔치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아시아의 대국 인도를 이기고 인천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이제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각종 시설의 준비와 손님맞이를 위한 국제도시로의 변모, 37개 종목 이상의 경기준비 등을 위해서는 매우 바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방문했을 때 광저우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의 부족함과 빠른 대회준비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 일부에서는 준비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서두른다는 입장도 있고, 아시안 게임을 인천만의 행사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등을 비롯하여 날로 커지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규모에 걸 맞는 범국가적인 지원 문제 등 극복해야 될 장애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차질 없는 준비와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시안게임의 의의

- 그동안 대한민국은 86서울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등 세계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근간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국가 및 개최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 또한, 시민의식 향상과 교통, 통신, 관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최도시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생활스포츠의 활성화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효과로 생산유발 효과 약13조원, 부가 가치 효과 5조 6천억 원과 약 27만 명의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도시의 업그레이드』 효과입니다.

도시구조, 경관, 도시운영체제 등 모든 것이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국제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인천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송도,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이 완성되어 세계 10대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 둘째로 인천 『도시브랜드의 업그레이드』 효과입니다.

사실상 외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이외의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의 개최 이후에는 세계 속에 인천으로 거듭나면서 인천이란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 셋째로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효과입니다.

인천이 명품도시가 되려면 시민들도 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안 게임은 시민들이 대회 수준에 맞추어 시민의식, 질서의식, 외국인에 대한 관용 등 국제 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은 물론 인천경제를 도약 발전시키고 인천발전의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 부산아시안 게임으로 도시의 발전을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중앙정부, 체육계의 하나 된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협력, 치밀한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 대회 성공을 위한 과제

대회 성공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는, 완벽한 대회시설 준비입니다.

며칠 전 북경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정부와 중국 국민이 세계 각국 선수들을 위하여 준비한 경기시설, 선수촌과 개·폐회식의 무대인 주경기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에 40억 아시아인의 대표를 인천으로 초청하게 되나, 인천은 도시가 워낙 빠르게 팽창하는 것에 비해서는 스포츠 기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폐회식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의 진수와 IT기술력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및 인천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폐회식 문화행사 장소는 물론 아시아인 최대의 잔치에서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이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치밀한 대회운영 준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회를 통하여 가장 완벽한 대회운영과 손님맛이를 하는 저력 있는 나라로 국제 스포츠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스포츠계 인사들은 88서울올림픽처럼 완벽한 대회가 없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대회운영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직접 담당하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대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기에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뜨거운 참여의식이 요구 됩니다.

○ 세 번째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도시체제 전환입니다.

인천이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표방한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인천에는 세계 64개국으로 연결되는 항공노선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등이 있고 전통적으로 수도권 의 물류 도시로서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표시판, 도시안내체제, 외국인 안내정보, 교통체제, 수송 수단 등 여러 면에서 진정한 국제도시라고 보기에 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대회 경기장은 대략 39개소이지만 아시안 게임의 개최 장소는 결국 경기장만이 아닌 대한민국과 인천이 라는 도시 전체입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아시안게임 패밀리와 관광객 들은 경기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인천 전체를 보고 그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도시체제, 운영시스템, 시민의식, 시민의 역량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명품도시가 되도록 인천시와 시민 들이 함께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 네 번째는, 외국인 친화적인 국제도시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인천이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단순히 허브도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브역할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인천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친화적인 도시환경과 함께 증동 등 범아시아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영어는 물론 중국어 한마디라도 배우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음식, 쇼핑, 관광, 숙박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외국인이 와서 즐기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섯 번째는, 인천의 꿈나무를 조속히 육성해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 아시안게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소외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출신의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인다면 인천아시안게임은 영원히 인천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 여섯 번째는, 시민화합 및 세계시민 역량제고입니다.

서울 및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시민들의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유치단계에서 대회준비, 그리고 대회개최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 활동, 손님맞이 문화개선 활동 등 시민의 적극적인 대회 참여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인천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준비기간 및 대회개최 기간 동안에 시민 서포터즈 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아울러 시민제안, 반상회, 공청회, 정책간담회 참석을 통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시,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대회참여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 하지만 민주적 의식, 합리적 사고와 함께 참여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하여 육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관의 협력에 기반 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세계적 규범에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개방된 인식,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 다양한 측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인천거주 외국인들을 통해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도록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용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인천시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결론으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부에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인천만의 잔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이 장소를 제공하지만 국가행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의 자부심을 가지되 다른 지역인사들도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하고 함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역대 어느 도시보다 가장 성공한 국가행사가 되도록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노력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친구, 친척 등 각종 계기로 다른 지역 인사들을 만나실 경우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어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4. 맺음말

-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들께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때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기로 한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공적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발제 1〉

대회성공을 위한 대회기반시설 확보방안

유 의 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회성공을 위한 대회기반시설 확보방안

유 의 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대회개최를 위한 필요시설

가. 경기장시설

2007년 4월 인천이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인천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07년 12월 대회지원을 위한 한시법을 제정(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타)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시행일 2009.1.1 <한시법:2015.12.31>)하여 대회 개최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는 아시안게임 개최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1. 인천아시아게임 개최종목 및 필요경기시설

연번	경기종목	경기일수	경기장 수 (훈련시설)	연번	경기종목	경기일수	경기장 수 (훈련시설)
37종목 39개 경기장(48개 훈련시설)				19	체 조	7	1 (3)
1	육 상	7	1 (4)	20	펜 싱	6	1/2 (-)
2	축 구	14	5 (10)	21	배 드 민 턴	9	1 (-)
3	야 구	8	1 (2)	22	당 구	8	1 (-)
4	소 프 트 볼	7	1 (2)	23	보 디 빌 딩	4	1/2 (-)
5	하 키	12	1 (2)	24	볼 링	7	1 (-)
6	력 비	11	1 (2)	25	태 권 도	4	1/2 (1)
7	양 궁	5	1 (2)	26	복 싱	11	1 (2)
8	사 이 클	11	2 (-)	27	유 도	4	1/2 (-)
9	승 마	9	1 (-)	28	역 도	10	1/2 (-)
10	정 구	7	1 (-)	29	레 슬 링	6	1/2 (1)
11	테 니 스	11	1 (-)	30	세 팍 타 크 로	10	1 (1)
12	카 바 디	4	1/2 (1)	31	우 슈	4	1/2 (1)
13	스 퀴 시	5	1 (-)	32	카 누	4	1/2 (1)
14	배 구	13	2 (2)	33	조 정	4	1/2 (1)
15	핸 드 볼	14	1 (3)	34	요 트	6	1 (-)
16	농 구	17	2 (4)	35	사 격	7	1 (1)
17	수 영	14	2 (1)	36	골 프	4	1 (1)
18	탁 구	9	1 (1)	37	근 대 5 종	4	종목별경기장

*출처: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더불어 인천광역시 2007년 10월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단계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차질 없는 대회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경기장 시설의 마련이며 그 밑그림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2014 인천아시아게임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7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에서 약 20,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는 37개 종목을 치루기 위한 시설로 39개의 경기장과 48개의 훈련시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1). 39개 경기장 중 가장 많은 수의 경기장을 필요로 하는 종목은 축구로 5개의 경기장과 10개의 훈련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외의 종목은 1개 혹은 2개의 경기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벌어지는 경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체육관의 중복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필요 예상되는 39개의 경기장 중 18개를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21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21개의 신설경기장에는 레슬링과 유도 종목을 개최하는 체육관 1개, 수영장 1개, 축구장 1개, 배구를 위한 체육관 2개, 핸드볼 체육관 1개, 하키경기장 1개, 럭비구장 1개, 농구용 체육관 1개, 탁구용 체육관 1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구 연희동에 개·폐막식이 개최되는 주경기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2. 기존 및 신설시설 비교

기존 경기장 활용(18개)			신설경기장(21개)		
구분	수	종목	구분	수	종목
기존	4	축구, 야구, 체조, 보디빌딩/역도	동구	1	레슬링/유도
개보수	3	사이클, 정구, 복싱	남구	2	수영, 축구
민간	5	골프, 수영, 승마, 조정/카누, 요트	연수구	4	배구2, 핸드볼, 하키
인접도시	6	축구3, 농구, 당구, 세팍타크로	남동구	3	럭비, 농구, 탁구

*출처: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이 외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은 참가선수들을 위한 훈련시설로 4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선수훈련시설을 위하여 16개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32개의 시설은 기존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 선수촌 및 미디어촌

경기장 시설과 함께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한 필수시설은 각국의 선수단이 대회기간 동안 머무를 숙소인 선수촌과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계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미디어촌이다. 인천시는 2014년 대회의 유치과정에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와 선수 및 임원 13,000명 무료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이 약속 실행을 위한 선수촌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선수촌을 서구 연희동 일대 약 55만 m^2 의 부지에 숙소용 아파트를 4,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선수촌은 또 주경기장과 근접하여 저층으로 설계하기로 한 OCA와의 계약 내용과 부합하게 건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촌의 제공도 OCA와의 계약 사항이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동 약 40만 m^2 부지에 미디어촌을 건설하여 미디어 관계자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준호텔급 숙소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

다. 기타시설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도시의 기간산업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회 준비과정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보는 아시아 경기대회가 단순히 스포츠 종목의 국가간 경쟁을 위한 마당을 마련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아시안게임을의 또 다른 목표를 구현하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대회의 유치가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건설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등 교통망 확충계획에 따르며 총 13개소의 도로 및 교통망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6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차로 개선은 6개소, 표지판 및 대중교통정비 1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는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공원을 건설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전문선수를 위한 시설의 건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회 후 인천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소 350만 m^2 의 체육공원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체육공원 건설계획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연수구의 선학1동과 선학2동에 각각 45만 m^2 와 68만 m^2 크기의 체육공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동구에는 구월동에 81만 m^2 , 남촌동에 41만 m^2 , 장수동에 21만 m^2 를 수산동에 15만

m², 도림동에 24만m², 논현동에 8만m²의 체육공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계양구 용종동에 16만m², 서구 연희동에 32만m² 크기의 체육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표3.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훈련장 배치계획

구분	경기장(39개)					선수훈련시설(48개)			
	신설(21개)		기존(18개)			신설(16개)		기존(32개)	
	경기장	체육공원	기존	민간	개·보수	경기장	체육공원	공공+학교+민간	
합계	16	5	10	5	3	7	9	32	
인천	중구			인천공항 (조정/카누) 왕산(요트)	도원(복싱)			제물포고(복싱)	
	동구	송림 (레슬링/유도)						영화여자정보고(레슬링) 송현초(핸드볼) 동산고(소프트볼)	
	남구	문학(수영) 송의(축구)		문학 (축구, 야구)				인천고(소프트볼)	
	연수구		선학1(배구2) 선학2 (핸드볼, 하키)				선학1(축구) 선학2(축구, 하키)	시립옥련사격장(사격) 인천대건고(복싱) 먼우금초(세팍타크로) 승기수질환경사업소(축구)	
	남동구	남동 (럭비, 농구)	남촌(탁구) 구월, 장수, 수산, 도림, 논현	종합문예회관 (보디빌딩/역도)			남동 (럭비, 하키)	남촌(럭비) 구월(축구, 야구) 장수(축구2)	문일여고(농구) 동인천고(탁구) 신명여고(농구)
	부평구	십정 (테니스, 스쿼시) 부영(볼링)		삼산(체조)			십정(축구) 부영(수영)	명신여고(농구) 부평동중(농구) 청천중(체조) 부평공고(체조) 삼산체육관보조(축구)	
	계양구	계양(배드민턴) 동양(양궁, 소프트 볼) 독실(사격)	용종			계양 (사이클)	계양(축구) 동양(양궁)	용종(야구)	서운고(유도) 경인교대(체조) 계산공도장(양궁)
	서구	서구(육상, 펜싱/카바디)	연희		드림파크 (골프, 수영, 승마)	시립테니스 장(정구)	서구(육상)		공무원교육원(카바디) 인천그랜드CC(골프) 청라지원환경센터(축구)
	강화군	국화(BMX, 태권도/우슈)							길상초(우슈) 강화학생체육관(태권도)
인천 도시	부천			종합운동장(축구) 부천체육관(농구) 송내체육관(당구)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핸드볼)
	시흥			종합운동장(축구) 실내체육관 (세팍타크로)					
	안산			와스타디움 (축구)					올림픽기념관(배구) 감골시민홀(배구)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육상) 문화체육센터(핸드볼)
	김포								김포종합운동장(육상)
	안양								안양종합운동장(육상)

*출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2. 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가. 추정사업비

인천시는 이 대회를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약 2조 9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경기장 건설에 투입될 예산은 21개 경기장의 신설, 3개의 기존시설 개보수 등에 1조 8천억원 정도이며 10개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6,297억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4,557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 재원의 조달

3조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는 동북아중심도시의 건설을 표방하고 다양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각종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는 매 대회 때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이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대회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정한 것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시설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표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자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율(%)
	계	국비	시비	
계	2조 8,899	9,581	1조 9,318	33
경 기 장	1조 8,045	5,413	1조 2,632	30
체 육공원	6,297	1,889	4,408	30
교 통망확충	4,557	2,278	2,279	50

*출처: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등 건설기본계획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규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도로 등의 개설에는 50%까지 경기장의

경우에는 30%까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경기장과 체육공원의 조성의 30%인 7,300억 원을 국비로 조달하려 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50%인 2,300억원 정도를 국비로부터 지원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장시설 및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9,500억원이 넘는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인천시가 자체예산 수립 및 조달을 통하여 1조 9천억원을 확보하여야한다.

다.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사례

부산아시아게임은 대회 10년 전인 1992년부터 준비되었다. 처음 부산발전방향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일부 체육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대회 유치를 공식 제의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1993년 5월에 조정위원회에서 대회유치 심의를 하고 유치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을 총38개 종목에 44개로 계획하고 이중 24개 종목의 32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5개 종목, 12개 경기장은 신설하였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의 시설을 준비하면서 대회 6년 전에 대회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시행하였다.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대회준비를 위한 직간접 기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고보조금 720억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2년까지 3,380억 원 가량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2조 1,565억 원 가량을 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그리고 지방채 4,730억 원을 발행하여 총당해 총 약 2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회를 치렀다. 이는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과 도로시설 등의 시설투자계획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대회운영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면 외형 면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물가성장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경기장 시설을 지역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런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대회개최 7년 전인 1995년 10월에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구역 외 설치 대안의 검토 작업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의논, 1995년 12월 건설교통부령 제84호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5.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경기장 신설

경기장명		개최종목	위치부지	규모	건설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육상	부산 연제구	53,926석	2,269억원
		축구(결승)			
금정체육공원	금정체육관	농구(예선·준결)	부산 금정구	총 5,500석(고정 4,000 가변 1,500)	-
	금정사이클경기장	사이클		5,038석	
	금정테니스경기장	테니스		4,596석(센터 3,596 서브 1,000)	
강서체육공원	강서체육관	배드민턴	부산 강서구	4,830석	786억원
		펜싱			
	강서하키경기장	하키		(고정 1,000, 가변 1,000)	
	강서양궁경기장	양궁		가변 500석	
기장체육관		배구	부산 기장군	주 5,338석(고정 6,451, 가변 1,884,보조 232)	480억원
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		조정	부산 강서구	가변 1,000석	55억원
		카누			
부산 승마경기장		승마	부산 강서구	2,460석	-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골프	부산 기장군	600석	-
홈플러스 아시아드볼링장		볼링	부산 연제구	500석	353억원

*출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보고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신설경기장 중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 것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이다. 개폐막식 및 육상과 축구 경기가 열린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 54만 3천㎡ 중 31만 9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 2천㎡의 시설로 지어졌으며 관중석은 5만 3,926석으로 총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상 2층 연면적 1,407㎡로 1만 3,1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을 포함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2,26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설계에서 완공까지는 약 9년이 소요되었다.

주경기장은 무엇보다 개·폐막식이 거행되는 거대한 무대로 이를 관람하는 관중석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고려는 우선시 되어야한다. 부산 경기장의 경우에는 관중석이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좌석수는 총 5만 3,926석이지만 개폐막식에 참가하는 선수단, 운영요원, 공연단 등이 들어설 경우에는 약 8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OCA의 주경기장 권고 기준을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였다.



표6.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기존 경기장 활용

경기장명		개최종목	위치 부지	규모	
부산 종합 운동 장	사직체육관	체조	부산시	13,126석	
		농구(준결승·결승)			
	사직수영장	수영	부산시	3,313석	
	사직야구장	야구	부산시	30,514석	
	사직정구장	정구	부산시	1,200석	
구덕 종합 운동 장	구덕체육관	유도	부산시	4,289석	
		태권도		11,880석	
	구덕야구장	소프트볼		30,000석	
	구덕운동장	축구			
부산 요트경기장		요트	부산시		
부경대학교 체육관		역도	부산시	1,500석	
시민회관		보디빌딩	부산시	2,020석	
동서대· 경남정보대 민석스포츠센터	2층	세팍타크로	부산시	1,764석	
	3층	우슈		1,764석	
동명정보대 스타디움		카바디	부산시	1,300석	
동주대학체육관		당구	부산시	1,000석	
부산시 외 경기장 (13개소)	마산	마산체육관	복싱	마산시	5,000석
		마산종합운동장	축구	마산시	21,848석
	창원	창원체육관	핸드볼	창원시	5,891석
		창원종합운동장	축구	창원시	27,285석
		창원실내수영장	근대5종(수구)	창원시	3,078석
		창원종합사격장	사격	창원시	1,762석
	울산	창원늘푸른전당	근대5종(펜싱)	창원시	368석
		울산공설운동장	럭비	울산시	23,000석
		울산동천체육관	탁구	울산시	6,311석
	양산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축구	울산시	43,512석
		양산체육관	레슬링	양산시	3,409석
		양산공설운동장	축구	양산시	22,000석
		양산대학체육관	스쿼시	양산시	800석
		공수도			

*출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보고서



3. 시설 건설에 따른 쟁점

<쟁점 1 : '주경기장 신설' 대립>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은 육상과 축구 등의 종목의 시합이 벌어지는 운동장임과 동시에 수만명의 관중를 대상으로 개막회식과 폐막식이라는 행사를 펼치는 공연장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주경기장을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일대 58만 6천㎡ 부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경기장은 7만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대회 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컨벤션 센터, 공연장, 전시장 등 수익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러한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는 OCA의 권고기준안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하는 중앙정부로부터 흔쾌한 승낙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였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때 건설한 5만명 규모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OCA의 7만명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만큼 꼭 이 권고에 부합하는 경기장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경기장을 짓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2002 부산아시안게임 때 5만 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OCA의 요구에 따라 개·폐막식 때 8만석 규모로 변경한 사실을 들어 문학경기장을 증개축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학경기장은 개폐막식 때 대규모 선수단과 행사인원 등 10만명을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할 때 주경기장 신설 비용 2,860억 원의 50%가 넘는 1,63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경기장의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경기장 내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모델로 수익시설을 배치하면 매년 최저 61억 원에서 최대 125억원까지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경기장 건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인천시는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가변석을 늘리는 주경기장 신설 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재협상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경기장을 고정석 5만석, 가변석 2만석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꿔, 고정석 3만석에 가변석을 4만석으로 조정하였으며 가변석을 늘릴 경우 주경기장 건설비용은 당초 3,532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1,194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문학경기장 등 대형 종합운동장은 특별한 경기가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신설하려고 하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대회 이후 24시간 시민의 출입을 허용하고 스포츠 관련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을 조성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시의 주경기장 신설계획과 관련해 첫째, 기존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둘째, 개·폐회식 1회성 행사를 위해 과도한 건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셋째, 대회 개최 후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사후활용방안도 미비하고, 넷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경기장 건설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를 훼손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기장 신설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쟁점 2 : 개발제한구역내의 경기장 건립>

아시안게임 시설 건립에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회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이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설 경기장 중 주경기장을 포함한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안을 수립해놓은 상태이다.

인천시 입장은 그 동안 개발의 제한해운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선수촌 아파트를 짓고 그 분양대금으로 아시안게임 운영 및 시설건설 비용에 재투자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획된 선수촌 아파트와 주경기장의 건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대구유니버시아드 때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반영된 전례는 없어 인천시가 요구하는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인가는 아직은 판단 내리기 곤란한 시점이다.

다만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의 5조에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광고물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를 인천시의 해당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협의 중에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경기장의 건설에 따른 제약은 제거될 전망이다.

대형국제대회의 개최를 기회로 이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일부라도 관철시키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 이는 낙후지역을 국제적 행사 개최를 기회로 발전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고자하는 시도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주민의 희망이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에는 언제나 반대쪽 의견을 제시하는 장벽을 만나게 된다. 우선 중앙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를 빌미로 일부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입장이었고 현재 인천시의 상황에서는 거주시설인 선수촌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더불어 환경론자와 지역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선수촌 시설은 물론 경기장의 건설까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우선 인천시는 선수촌과 미디어촌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 도시계획변경 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다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은 일정한 협의와 합의가 없이 절차상의 신청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변경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양한 경로를 접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기장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아시안게임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곧 아시안게임지원법의 개정만으로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그린벨트 내 입지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인천아시안 게임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인천시가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경제특구 및 도심재개발 사업이 곳곳에 진행되고 있어 그린벨트 이외 다른 부지에는 경기장과 선수촌을 지을 곳이 없어 이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내용상에 해결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법과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린벨트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 것인가도 이 지역에 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출현할 수 있는 일이며 해당부지의 보상과 관련한 원주민과의 마찰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회 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쟁점 3 : 건설비용의 조달>

인천시의 건설비용 조달에 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경기장 건설비용의 30%와 도로망 건설비용의 50%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준비초기단계에서부터 재원의 확보 문제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인천시로서는 아시안게임에 모든 투자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곤란한 시점에서 인천시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위해 약 4,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아파트의 분양을 통해 아시안게임 운영비 및 시설건설비를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 인천시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하지만 많은 경기장을 신설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인천시로서는 지방채의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수촌 아파트의 분양, 지방채 발행 외에 경기장을 다른 대도시나 인접 도시로 분산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 재원을 줄여 투입량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며 더불어 신설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인천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야할 것이다.

4. 대회 시설 확보를 위한 제언

가. 각종 제도적 법적 근거 확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고의 대회 개최를 통하여 인천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인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대회는 인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완벽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준비해야할 것은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립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정비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시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결방안은 원만히 도출될 것이며 안정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 건설 문제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종 단계의 규제와 법령 등을 정비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일의 병행을 통하여 실질적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시설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기존시설 활용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기장 시설 준비 상황과 비교해보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인프라의 부족을 2014년 대회 한번에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 2014대회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장 시설의 수요 예측은 향후 활용방안의 도출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번의 아시안게임과 그 이후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경기장의 수,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기장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지금의 계획이 단지 아시안게임을 치루는 데 필요할 뿐이고 사후에는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인근지역의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 주변의 시는 물론 서울까지를 고려하여 기존 경기장을 활용 가능성을 찾는 것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사후활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그 시설의 본연의 임무인 체육활동만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건설비용에 대한 상계는 물론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현실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재원의 확보

아시안게임의 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은 30-50%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나머지는 인천시의 시비로 충당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언급한 대로 인천시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단계로 아시안게임에만 모든 총력을 집중할 수 없는 단계이다.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고 있는 제한적인 시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시비를 절약하여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을 시비로만 충당하기 보다는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2002년 월드컵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2,000억 원이 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체육기금의 활용방안, 체육복권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발제 2>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이 한 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이 한 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One World, One Dream)이란 슬로건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 피부색과 언어,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스포츠 제전이 올림픽이라면 40억 아시아인의 우호와 평화촉진을 위한 스포츠 종합경기대회가 아시아경기대회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국운 융성과 중화주의에 입각한 5천년 역사, 현대화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전진하는 중국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중국은 10만 관중과 65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개막식에서부터, 1천억원 이상을 들여 첨단기술과 전통을 소재로, 56개 소수민족의 조화와 인민의 올림픽을 지향하는 13억 중국인의 염원을 표현하여 '꿈의 공연'으로 찬사 받기도 하였다.

경기에서도 일찍이 미국과의 격차를 벌여 나가며 선두를 지켜나가고 있어, 중국인의 100년 꿈이라는 올림픽 개최와 경기대회 성적의 목표 달성은 이루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벳 독립시위에 대한 유혈진압과 계속되는 테러발생, 공해 문제로 인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단과 차량통행 제한 등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로 그린 올림픽, 첨단 올림픽, 인민의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루지아에서의 전쟁, 중국과 일본의 우리영토 침탈 등 국가이기주의에 의한 영토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 세계 시민들과 지구 공동체 및 문명을 공유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조성하겠다는 올림픽의 이상 구현이 난망한 현실이다.

특히,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10%대의 고속성장을 유지시키고 경제발전의 상승세를 지속시키려는 중국은, 상하이 증시가 올림픽 개최이후 전년대비 50%이상 폭락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오히려 과열



후유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올림픽 이후에 예상되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급락과 이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 속에서도 금빛 시위와 당당히 물살을 가르는 모습,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 한판으로 만 정상에 오른 세계에서 최고가 된 선수들만이 아니라, 부상에도 투혼을 불사른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등 소낙비보다도 시원한 낭보는 기나긴 거리의 합성을 한쪽으로 몰아 부치고 한쪽만 바라보며 통치하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정신 건강을 위한 작은 희망이다.

국가적으로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인천에서는 2002년 월드컵과 2005년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세계 유일분단국가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공동 입장 등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다해서 갖게 된 국민들의 자부심이, 이번 베이징대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의 취지와 함께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의미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에,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양면성과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시민참여 방안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1.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양면성과 시민참여 방안

(1)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양면성

- 국제 스포츠대회는 기본적으로 이념, 종교, 국경을 뛰어 넘어 단합과 우정, 진보, 조화, 꿈을 모두 반영하는 본질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최소한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만큼은 갈등과 전쟁을 지향하고, 스포츠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의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 또한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열망인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쌓아가고, 경기대회를 통해 친선과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 그러나, 평화 지향이 탈정치화로 의미가 축소될 경우 종종 권력에 악용되거나, 권력이 허위의식을 조장하여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수단화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2) 시민참여 방안

- 시민참여 방안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서포터즈나 자원봉사 차원으로만 머물러서는 경기대회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할 수 없을뿐더러, 경기대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경기대회 시설의 적합성 및 활용방안, 경기대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경기대회 연계 경제발전 및 고용효과, 경기대회를 통한 국제 교류와 협력 활성화, 자발적 시민 참여의식 고취, 시민 일체감 조성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1) 취지와 모태

- 아시아경기대회는 2차 세계대전 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와 평화촉진을 목적으로 생겨난 스포츠 종합경기대회이다.
- 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는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이 참가하여 1913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극동선수권대회와 인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등이 참가하여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西)아시아경기대회가 1949년에 합병하여 부활한 대회이다.

- 아시아지역의 스포츠와 올림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982년 12월5일 결성된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제스포츠 기구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 Olympic Council of Asia)에서 주최한다.

(2) 역대대회

-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첫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이란 테헤란, 인도 뉴델리, 한국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 히로시마, 태국 방콕, 한국 부산, 카타르 도하를 거쳐, 2010년에는 중국의 광저우, 2014년에는 한국의 인천에서 제17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 개요

- 명 칭 :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기 간 : 2014. 9. 19 ~ 10. 4(16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일원
- 참가 규모 : 45개국 OCA 회원국 선수 및 임원 15,000여명
- 운영 요원 : 30,000여명
- 주 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Olympic Council of Asia)
- 주 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IAGOC)
- 경기 종목 : 37개 종목

(2) 비전과 방향

- 대회목표
 - 최고의 아시아경기대회 구현
 - 아시아스포츠의 균형발전 도모
 - 40억 아시아인의 우의 증진

○ 기본방향

- 최다 OCA 회원국이 참가하는 대회를 구현
- I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대회를 창출
- 선수단의 최고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축전으로 개최
- 회원국 경기력의 균형발전 지원

(3) 기대효과

○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구 분	인천시 경제효과	기타지역 경제효과	전국 경제효과
생산유발효과	106,175 억원	23,153 억원	129,328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4,239 억원	11,336 억원	55,575 억원
고용유발효과	201 천명	68 천명	269 천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당성 분석」(2006.7.3)			

○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
-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 및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
-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제고

○ 국민통합 및 자긍심 제고

- 2014 아시안게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시민화합과 통합으로 일체감 조성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적 자긍심 고취

○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

-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제 종합경기대회가 없는 상황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



-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보로 국민체육건강 증진에 이바지
- 엘리트 체육인의 양성을 통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행사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뭉 조성과 참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월드컵 경기 응원과 촛불시위 등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출발했다.
-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은 지역의 각 부문과 직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해야 한다

(1)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본조건

- 아시아인의 화합, 우호증진, 평화기여라는 근본적 의미와 대회를 통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만으로 줄 세우거나, 외형적으로 성장한 모습만으로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시키기 보다는, 개최지역으로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인천지역의 사회통합이 우선이다. 개발과 성장에 의한 시민과의 갈등과 자연과의 갈등을 치유하는 진정한 평화와 생태에 기반한 통합이어야 한다.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3D 업종의 기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진출이 급증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반인권적인 행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국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해외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산업도시이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계기로, 다문화를 존중하는 진정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 한반도를 동북아 화약고에서 세계 평화의 장으로 전환하는 남북 및 다자간의 합의와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04년 6.15남북공동선언 4돌 기념행사가 지역에서는 인천이 처음 개최되었고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의 청년학생협력단이 참가하는 등, 동북아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은 북측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남북 정부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시아경기대회의 참가국 확대와 평화 지향의 취지를 살려 성공적 대회 완수를 위한 인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인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과거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08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 경기대회 유치로 경제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일부 지역이, 과장된 기대효과나 일시적 경제효과로 끝나거나 과도한 간접시설 투자로 관리 및 운영상의 누적적자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지 않고, 일시적 효과만을 노린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병폐다.

- 궁극적으로 시민적 공감형성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시민 스스로가 경기대회의 단순 조력자나 자원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아시아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기대회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덫으로 돌아올 수 있다.

(2) 시민 참여 붐 조성 방안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참여 붐 조성은, 이미 지난해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유치운동으로 기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이제는 전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별, 영역별, 주제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붐 및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와 이벤트(걷기대회, 등반대회, 자전거대회, 인라인대회, 인터넷 홍보대회-UCC 등)를 비롯하여, 주제 또는 부문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등이 내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통대책, 문화관광, 환경, 경제, 시민참여, 다문화, 국제교류 등을 주제로 한 지역, 국가, 국제단위의 토론회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진되던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붐을 조성한다. 특히, 단순히 성공기원을 염원하는 의미 정도의 반영이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 스포츠행사 등도 주제와 참여그룹별로 다양화를 꾀하여 상투적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순회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전 시민이 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한 시민-한 홍보시책을 스스로 발굴 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내가 바라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경기대회에서 이것도 볼 수 있다 등)

(3) 시민 참여를 통한 기반 조성 방안

- 경기 운영시설 및 간접시설은 행정에 의해 조성되지만, 도시전역에 멋과 맛이 풍기게 하여 품격을 높이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몫이다. 시민들이 삶의 공간에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숙박업, 요식업, 쇼핑센터 등 각종 서비스업에서의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손님 맞을 준비는 시민들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
- 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 있어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인천이나 대한민국의 우월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함이나 아시아경기대회만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강압이나 일시적인 이벤트 정도로 다가간다면, 대회 기간은 물론이고 대회 이후에도 아시아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나 약소국 등에 대한 따스함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밖에 기초 생활 실천운동을 비롯하여, 차량 부제 운행 등 전시민의 참여를 통해야만 가능한 경기대회 기반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시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

가. 시민협의회

- 2002년 월드컵지원법에 의해 결성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 인천시협의회는 1998년에 설치되어, 시민참여 지원과 문화시민 3대 덕목 실천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주도했다.
- 인천지역 10개 군, 구별로 결성된 군·구 월드컵 지원단은 월드컵 홍보와 시민참여분위기 조성,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숙박, 위생 점검, 주정차 단속 등 일정부분의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 월드컵 유관기관, 단체협의회는 유관기관, 직능단체, 사회단체, 구·군 등 45개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여, 월드컵 준비 및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였다.
- 2005년에는 6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 회원 참여 독려와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 2005년 군·구의 통장단협의회 회장단과 주민자치위원장 275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139개 읍·면·동의 3,832개 통·리장, 20,834개의 반장, 각동의 주민자치위원 3,044명을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범시민협의회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추진 기구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협력방안과 범시민적 참여방안을 모색하는데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준비과정에서부터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에 옮기는 것은 민관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 자원봉사

- 인천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주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체계를 운영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다.
- 2002년에는 관광.숙박 34명, 교통.수송 143명, 통역.번역 112명, 문화행사 38명, 행정.기타 213명으로 총 54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했다.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터키 등과의 경기 때 펼쳐진 길거리 응원전에는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흥겨운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활동했다.
- 2005년에는 국내외 의전 63명, 방송보도 36명, 안전대책 38명, 물자운영 11명, 인력운영 126명, 입장관리 121명, 시설운영 112명, 개폐회식 38명, 의무지원 53명, 등록운영 37명, 숙박운영 50명, 종합정보운영 35명, 수송지원 167명, 경기운영 349명으로 총 1,236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였다.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는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보다 10배 이상의 선수단과 임원단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고, 보름간의 행사일정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참가국별 응원단과 관광객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수많은 관람객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야별, 군·구별 전문자원봉사자 등록현황(2008년 5월기준)을 보면, 재난재해 497명, 의료간병 1,093명, 교육상담 707명, 생활개선 1,841명, 외국어 통역 1,130명, 이.미용 492명, 문화예술 679명, 환경보호 1,700명 등 8,139명으로 충분한 자원봉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분야별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맞춤형 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2009년 세계도시축전의 자원봉사 시스템부터 적용과 검증이 필요하다.

다. 서포터즈

- 2005년에는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63개 단체 7,500여명의 서포터즈와 각 군.구의 3만여 시민, 130여개 학교 12만명의 학생이 서포터즈로 참가하였고, 이밖에 종교단체와 기업체, 군부대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 특히, 북한 응원단으로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과 북한 서포터즈는 자리는 달랐지만 이심전심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여 언론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 부족 및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미흡하게 운영된 점의 보완 필요성이 평가되었다.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별, 경기종목별, 경기장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별 연관 단체 또는 훈련된 서포터즈 운영진 등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서포터즈를 우선 선정하여 전체 서포터즈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기 타

- 오프라인에서의 홍보와 자원봉사 체계 운영만이 아니라, 디지털과 멀티미디어에 기반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다양한 형태의 서포터즈와 홍보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맺는 말

- 우리 인천은 월드컵과 아시아육상대회 성공적 개최에 따른 기본적인 질서 의식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너지가 충만하며 자신감이 넘쳐 있고, 2009년 세계도시축전 개최와 함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인천발전의 교두보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 특히, 유치 전략으로 약소국의 미래 꿈나무 육성 지원을 계획한 것은 물량 공세 위주의 유치 풍토에서 경기대회 취지와 의미도 살리고, 스포츠를 매개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88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는 또 다른 여건에서 출발한다. 88서울올림픽이 87년 6월 항쟁 이후 고양된 민주 의식과 시민의 자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2002년 월드컵도 외환위기 극복이후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추진됐으나, 2014년의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 기후 변화와 에너지 총소비의 증가에 따른 지구차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이기주의가 확대되어, 영토분쟁과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인의 관심인 남북의 관계도 냉랭하다.
- 과요불급(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이라고 했거늘, 안으로는 개발 과정의 갈등과 자연훼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정세와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2002년 월드컵 백서
- 2002년 월드컵 종합평가 보고서
-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백서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소개

I 아시아경기대회 태동

1. 아시아경기대회 모태

- 아시아경기대회의 전신은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극동선수권대회와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西)아시아 경기대회가 1949년 합병하여 부활한 것이다
- 극동선수권대회는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양 올림픽 대회가 그 기원이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나라는 필리핀·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홍콩 등 6개국이었으며, 제2회 대회부터는 극동선수권대회로 대회명을 바꾸어 2년에 한 번씩 일본·중국·필리핀에서 1934년 제10회까지 개최되었다. 제11회 대회는 동양선수권대회로 개칭하여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 서아시아경기대회는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아프가니스탄·스리랑카·팔레스타인이 참가하여 시작된 대회이다.
- 이렇듯 서로 다른 지역대회는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한국·필리핀·미얀마·인도·타이완·스리랑카 등 6개국이 모여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194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여하는 AGF(Asian Games Federation : 아시아경기연맹)을 창설한다.
- 따라서, 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는 극동선수권대회(동양올림픽대회)와 서아시아대회라 할 수 있다.

2. 아시아경기대회 창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기간 중 아시아의 13개국 단장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아시아 지역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받고 한국·필리핀·미얀마·인도·타이완·스리랑카 등 6개국이 모여 지역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
- 이후 1949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시아육상경기연맹 결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개최국인 인도 사정으로 제1회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 1949년 2월 9개국 대표 11명은 다시 모여 제2차 회의를 갖고 당시 인도 IOC위원인 손디(**G.D.Sondhi**)의 제안으로 지금의 대회명칭으로 바꿨으며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조직하는 **AFG(Asian Games Federation : 아시아경기연맹)**를 창설한다
- 그러나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야 AFG헌장과 규칙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혼란을 겪어오다가 1982년 대회 발전을 위하여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여 비상설 기구였던 AFG를 지금의 OCA(Olympic Council of Asia :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 창설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회를 주관해 오고 있다

II OCA 소개

1. OCA 창립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는 아시아 지역의 스포츠와 올림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982년 12월 5일 결성된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제스포츠 기구이다.
- OCA의 전신은 1949년 2월 인도 IOC 위원이었던 G.D.Sondhi (손디)의 제안으로 9개국 11명의 대표가 모여 결성한 아시아 경기연맹(AGF: Asian Games Federation)이었다. 그러나 AGF는 비상설기구로서 4년 주기대회가 개최될 때 마다 개최국에 임시로 설치돼 운영해 왔고 위원장 역시 개최국에서 선정됐다.
- 이러한 형태로 9번의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해 오던 AGF는 1981년 11월 26일과 1982년 11월 16일 인도 뉴델리 AGF총회에서 기구 상설화의 필요성을 인식, 상설기구의 창설에 합의하고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982년 12월 5일 창립총회를 열어 OCA를 출범시켰다
- 당시 창립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총 34개국이었으나, 현재는 4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 OCA가 주최하는 주요 대회는 4년 주기의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1회 대회 1951년) 및 동계 아시아경기대회(1회 대회 1986년)와 2008년에 처음 개최될 예정인 2년 주기의 비치아시아경기대회가 있다.
- OCA의 주요 재원은 IOC로부터 지원받는 Olympic Solidarity 기금과 동·하계 아시안게임의 마케팅 수익금 및 본부 소재국인 쿠웨이트 정부의 지원금 등이 있다

2. OCA 집행위원회

- OCA 초대 의장은 쿠웨이트의 왕족 셰이크 파하다 알-사하브 (1982~1991)였으며, 2대 의장인 셰이크 아마드 알-파드 알-사바 (Sheikh Ahmad Al-Fahad Al-Sabah)는 초대 의장의 2세로서 부친 사망 후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 사무총장은 인도의 라자 란디르 싱(Raja Randhir Sindh)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재임중이며 라자 란디르 싱의 부친 역시 인도 IOC위원(1947~1992)과 AGF(1982) 및 OCA 명예회장(1992)을 지내는 등 대를 이어 국제 스포츠기구의 중책을 맡고 있다

3. OCA 회원국

권역별	국 가
동아시아 (8개국)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차이나티베이, 홍콩, 마카오, 몽골
동남아시아 (11개국)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남아시아 (8개국)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아시아 (14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시리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III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1. 개최예정도시

회수	개최국	개최도시	개최년도	개최기간	비 고
17	한 국	인 천	2014	09. 19 ~ 10. 04	
16	중 국	광저우	2010	11. 12 ~ 11. 27	

2. 역대 개최도시

회수	개최국	개최도시	개최년도	개최기간	한국성적				비고
					금	은	동	합계	
15	카타르	도 하	2006	12.01~12.15	58	53	82	193	
14	한 국	부 산	2002	09.29~10.14	96	80	84	260	
13	태 국	방 콕	1998	12.06~12.20	65	46	53	164	
12	일 본	히로시마	1994	10.02~10.16	63	56	64	193	
11	중 국	베이징	1990	09.22~10.07	54	54	73	181	
10	한 국	서 울	1986	09.20~10.05	93	55	76	224	
9	인 도	뉴델리	1982	11.19~12.04	28	28	37	93	
8	태 국	방 콕	1978	12.09~12.20	18	20	31	69	
7	이 란	테헤란	1974	09.01~09.16	16	26	15	57	
6	태 국	방 콕	1970	12.09~12.20	18	13	23	54	
5	태 국	방 콕	1966	12.09~12.22	12	15	21	51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62	08.24~09.04	4	9	10	23	
3	일 본	도 쿄	1958	05.24~06.01	8	7	12	27	
2	필리핀	마닐라	1954	05.01~05.09	8	6	5	19	
1	인 도	뉴델리	1951	03.04~03.11	-				

IV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관

1.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대회기간 : 2014. 9. 19 ~ 10. 4(16일간)
- 대회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일부종목 인근 도시 분산 개최)
- 경기종목 : 37개 종목
- 참가규모 : 45개국 OCA 회원국 선수 및 임원 15,000여명
- 운영요원 : 30,000여명
- 주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Olympic Council of Asia)
- 주관 : 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IAGOC)

2. 대회목표

- 아시아 스포츠의 발전
-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도약

3. 대회 기본방향

- 우리나라와 인천의 국제적 브랜드 향상 및 인천의 자부심 고양
- 역대 최고 수준의 아시아경기대회 운영
- 최첨단 IT대회, 친환경 보호대회, 아시아 고유문화의 종합 축전으로 개최
- 경제의 도약, 도시 기반구축, 스포츠 인프라 등 부가가치 최대창출
- 아시아 이주민 대회운영 참여로 아시아 소통의 계기 마련

※ 목표 및 기본방향은 잠정적인 것으로 대회 이념, 슬로건 제정 후 확정 예정

4. 대회 추진단계



1단계 (2008~2009년)

- 조직위원회에는 1사무처, 3본부, 6부, 15팀을 구성
- 대회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대회준비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 계획 수립
- 대회 상징물 (이념, 슬로건, 마스코트, 엠블렘) 제정
- 2009년 10월 OCA총회 개최

2단계 (2010~2011년)

- 조직위원회에 1사무처, 4본부, 13부, 30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 대회 참여분위기를 확산
- 대회관련 정보처리 및 정보기술 시스템 OCA승인 신청
- 단위사업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 동아시아 국제대회 포럼 개최

3단계 (2012~2013년)

- 조직위원회에 1사무처, 3차장, 9본부, 26실·부, 66팀으로 조직 확대
- 경기종목 결정 및 세부종목 결정 OCA 승인 신청
- 문화예술프로그램 OCA 승인 신청
- 각 분야별 준비상황을 마무리하고 주요 분야는 현장체제로 전환 운영
- 대회관련 시설의 점검과 예행연습 등 각 분야별 준비상황 종합점검

4단계 (2014~2015년)

-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완료
- 대회기간중 모든 참가선수, 임원에게 최선의 편의(숙박, 시합 등) 제공
- 대회기간 이후, 대회결산·평가 및 대회 결과보고서 작성 OCA에 제출

5. 아시아경기대회 위상

-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
 - 하계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대회 : 경기종목, 참여인원 세계최고 규모
 - ❖ 제28회 아테네올림픽(201개국,10,625명) / 제14회 도하 아시안게임(45개국, 9,520명)
-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비중이 45%. 세계인구 2/3차지 40억
 - 미래예측기관은 2020년에는 아시아의 시대 도래를 예고
- 중국은 국가발전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0년 상해엑스포를 유치
-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2018년 아시안게임
 - 제18회 아시안게임에 베트남, UAE(두바이), 요르단, 일본 등 관심

6. 아시아경기대회 기대효과

- 국가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추진
-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 제고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과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 우리나라 문화적 전통성 및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
 - 인천은 아시안게임 개최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의 기능확대로 동북아 허브도시로 부상
- 국민 및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 국가 체육발전 견인
 -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국민체육건강 증진 이바지
 - 엘리트체육인의 양성을 통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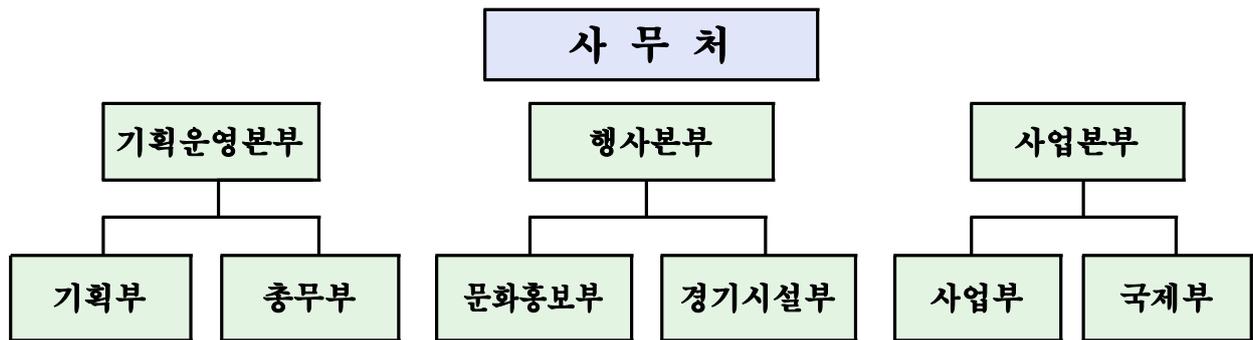
총생산 유발효과	12조9,328억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5,575억원
총 고용유발효과	26만8,500명
실제 투자비용	4조9,491억원
경기운영수익	6,831억원
관광객예상수입	5,000억원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7.3)	

기 타 참 고 자 료

I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일반현황

일반현황

○ 기구 : 1총장 3본부 6부 15팀(정원 100명, 현원 63명)



○ 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세 입		세 출		
	기금보조금	시 출연금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4,461	500	3,961	2,930	1,461	70

대회시설(계획 수립중)

○ 사업기간 : 2007.1 ~ 2013. 12

○ 경기장 소요 : 39개소

- 기존경기장(12개소) : 문학(2), 삼산(1), 부평(1), 계양(1), 가좌(1), 도원(1), 드림파크(3), 인천공항(1), 왕산(1)
- 인접도시 경기장(6개소) : 부천(3), 시흥(2), 안산(1)
- 신설경기장(21개소) : 연수(4), 남동(3), 부평(3), 계양(4), 서구(2), 남구(2), 동구(1), 강화(2)

○ 선수촌 · 미디어촌 : 967천㎡ (선수·임원 13,000명, 미디어관계자 7,000명)

○ 체육공원 및 도로 등 : 공원 10개소 / 도로 등 41개소

II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 대회준비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

- 역대대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계획으로 작성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특색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구성
- 인천시, 정부 등과 협조하여 관련 계획과 연계 추진

계획내용

- 총괄부문 : 대회이념, 목표, 시설, 자원, 준비사업, 추진일정 등
- 운영부문 : 경기, 행사 등 분야별 단위사업, 개별사업, 세부사업 등

계획의 발전단계



그동안의 추진사항

- 다양한 자료 수집 / 부서별, 분야별 전략과제 선정 4월
- T/F팀 구성 / 종합계획 수립 지침 마련 5~6월

추진일정

- 부서별, 분야별 기본계획 작성 7~9월
- 조직위집행위원회 보고 및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10월
- 조직위원회 총회 보고 11월

2. OCA 제출용 Master Plan 작성

사업개요

- 제출근거 : OCA계약서 제16항
- 제출기한 : 2008년 10월 (제53회 OCA 집행위원회에 제출)
- 주요 내용
 - 대회비전, 이념, 슬로건, 조직체계, 인력운영 계획 등
 - 대회추진 기본방향, 경기 및 행사 운영계획, OCA 공약사항 등

※ OCA현장, 개최도시 계약서 등 핵심사항 위주 작성

그동안의 추진사항

- 대회종합계획서 수립추진단 구성 1월
- 개최도시 계약서, OCA현장, 제안서 등 분석 검토 2월
- 계획서 초안 작성, 실무진 토론 3~6월
- OCA본부(쿠웨이트)방문 업무협의 6월말

향후 추진계획

-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검토협의 7월
- 조직위 집행위원회, 총회 보고 및 초안확정 8월
- 번역 및 PT자료 작성 9월
- OCA 제출 및 보고 10월

❖ 제53회 OCA집행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10.17(금)
- 장 소 : 인도네시아 발리
-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제출 및 PT보고

3. 대회 이념 및 상징물 제정 추진

제정대상

- 대회이념, 슬로건, 엠블렘, 마스코트

활용방안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이념화 및 형상화
- 대회이념 및 상징물의 제정으로 대회 브랜드 가치 제고
- 대회분위기 조성 및 마케팅 등 활용

제정시기

- 이념, 슬로건 : 금년중 제정
- 엠블렘, 마스코트 : 2009년까지 제작

추진방안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반영
- 전문업체의 제작 용역실시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 반영(자문위원회에서 용역여부 결정)
- 전 국민 대상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대한체육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등 활용
 -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한 아시안 게임의 홍보효과를 거양

추진일정

- 이념 및 슬로건
 - 이념 및 슬로건 기본계획 수립 7월
 - 전문위원회 구성, 용역 및 공모 실시 7~10월
 - 조직위 집행위원회 및 총회 보고후 확정 11~12월
- 엠블렘, 마스코트 제작
 - 상징물 제정을 위한 국민공모 실시 7~12월
 - 제작 착수 2009년 상반기
 - OCA 집행위원회 보고 및 상표등록 등 2009년 하반기

4. OCA 등 대외협력체제 구축

목 적

- 대회주최기관인 OCA와 신뢰·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스포츠단체, 각국 NOC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주요내용

- OCA, IOC, GAGOC 등 국제기구 방문 및 각종 국제회의 참석
 - 방문기간 : 2008. 5월 ~10월
 - 추진방향 : 마스터플랜 사전조율 및 대회 관련 협력방안 논의,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조사 등
 - 국제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행 사 명	시 기	장 소	주 관
중국광저우조직위방문	6. 4~6. 7	중국 광저우	IAGOC
북경올림픽	8. 8~8.24	중국 북경	IOC
OCA 총회/ 집행위원회	10.18~10.26	인도네시아 발리	OCA

○ OCA 및 각국 NOC 연락창구 개설

- 기 간 : 2008~2014
- 대 상 : OCA, NOC, 재외공관, 국제교류센터, 교민회 등
- 추진계획
 - OCA/GAGOC, NOC 45개국 연락창구 개설
 -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및 국제교류센터 등 유기적 관계 조성

○ OCA현장 등 규정별 준수·약속사항 분석 및 이행

- 분야별 준수·약속사항(총 75건)
 - OCA현장(20건) : 프로그램, 여행, 숙박, 영접, 현지수송, 안전 등
 - 개최도시계약서(33건) : 조직위 기구 및 대회 종합계획서 등
 - 공약사항(8건) : 선수 및 임원에 대한 무료 항공 및 숙박 등
 - 기타약속(5건) : Vision 2014 프로그램 등
 - 추가보안사항(정부보증 9건) : P.R 지급 보증 등
- 분석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
 - 소관별 담당부서 지정 및 철저한 분석

5. 대회준비 체제 확립 및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 국·시비, 자체수익사업 등 다각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 2009년도 사업예산규모 총 150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요구 40억 3천만원
- ※ 총 사업예산규모의 27% 차지

국회, 정부, 체육단체 등의 지원체제 구성

- 국회,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등의 지원체제 구축
 - 국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국무조정실에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조기 구성 요청
- KOC 및 경기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KOC 및 각종 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기관·단체별 교섭 창구 구축

대회준비 역량 강화

-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 대외협력전문위원회 등 6개 전문위원회 설치 예정
 - 분야별 전문지식 및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정례적인 직원교육 실시
 - 직원교육 : 2008. 3~12월(10개월), 목요일 (격주)
 - 직원워크숍 : 2008~2014년 (년2회)
 - 성공적인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 업무관리 시스템 웹메일 시스템 구축·운영 7월
- ※ 상황관리, 과제관리, 메모보고, 메일관리(내·외부) 등
- 조직위 홈페이지 구축·운영 7월
- ※ 홈페이지 주소 : WWW.2014Incheon.org

6. 아시아경기대회 핵심인력 양성

목 적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국제대회에 활용할 통역 및 경기전문요원 인력 양성

주요내용

○ OCA 회원국 상대 담당관 양성

- OCA 회원국 손님에 대한 맞춤형 영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회종료 후에도 인천의 무형자산으로 관리
⇒ VIP등 외국 중요 인사 국내(인천) 방문시 영접 및 안내
-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로 대회기간 중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인천에 있는 기업, 공무원, 교사, 체육인 중 직업이 있는 자로 국가별 담당관 지정
⇒ 각종 국제대회시 외국인과 동행하여 스포츠 외교관으로서 역할 수행
- 시공무원, 체육인, 기업가, 자원봉사자 등을 주축으로 인력 네트워크형성
⇒ 인력 네트워크 DB구축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외교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대회종료시까지 연차별 추진
- 대상언어 : OCA 45개 회원국 사용언어 22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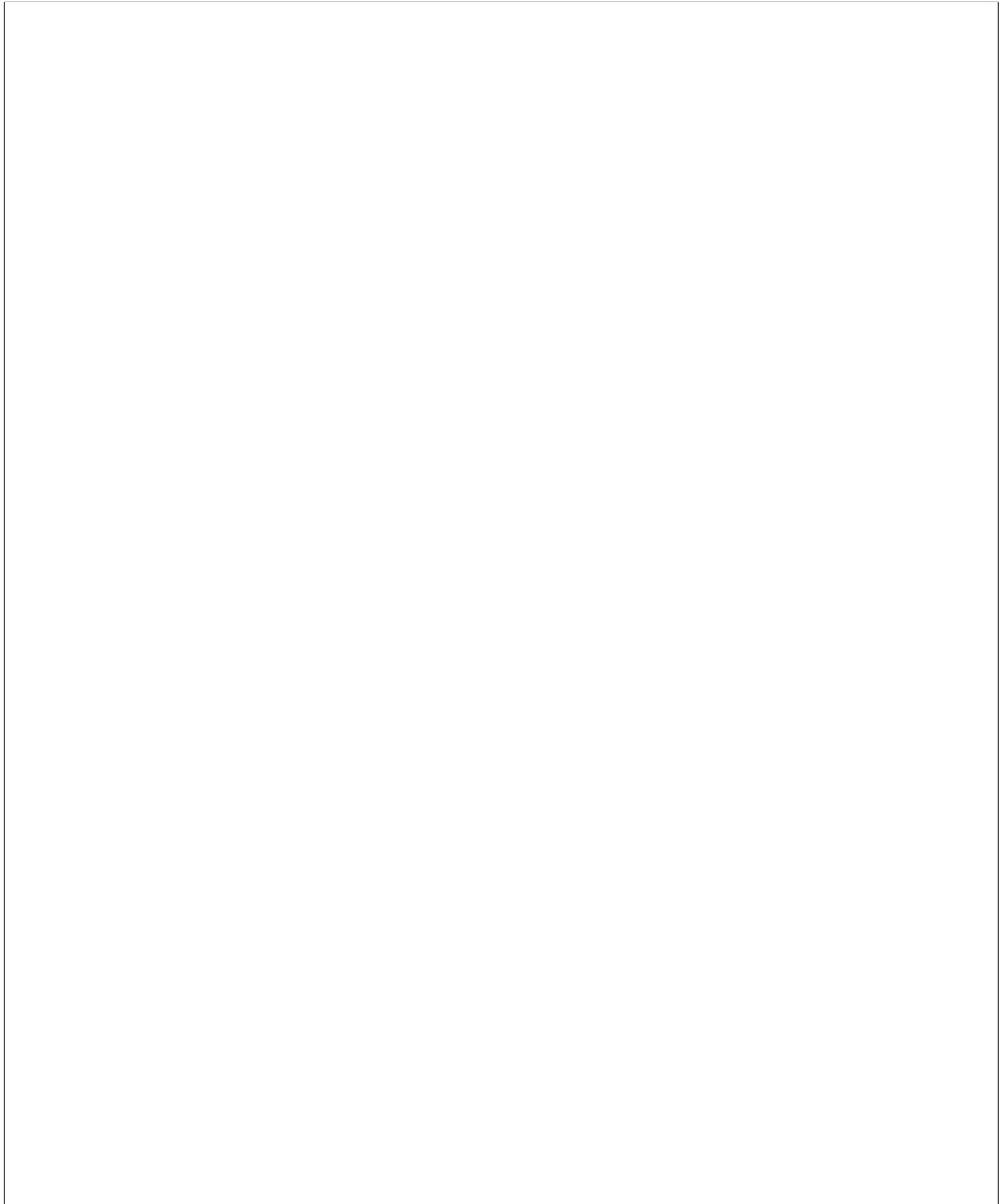
○ 대회 경기진행 전문요원 양성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진행요원으로 향후에는 국제대회 전문인력으로 육성·활용
⇒ 연차적인 전문인력육성으로 스포츠전문 인적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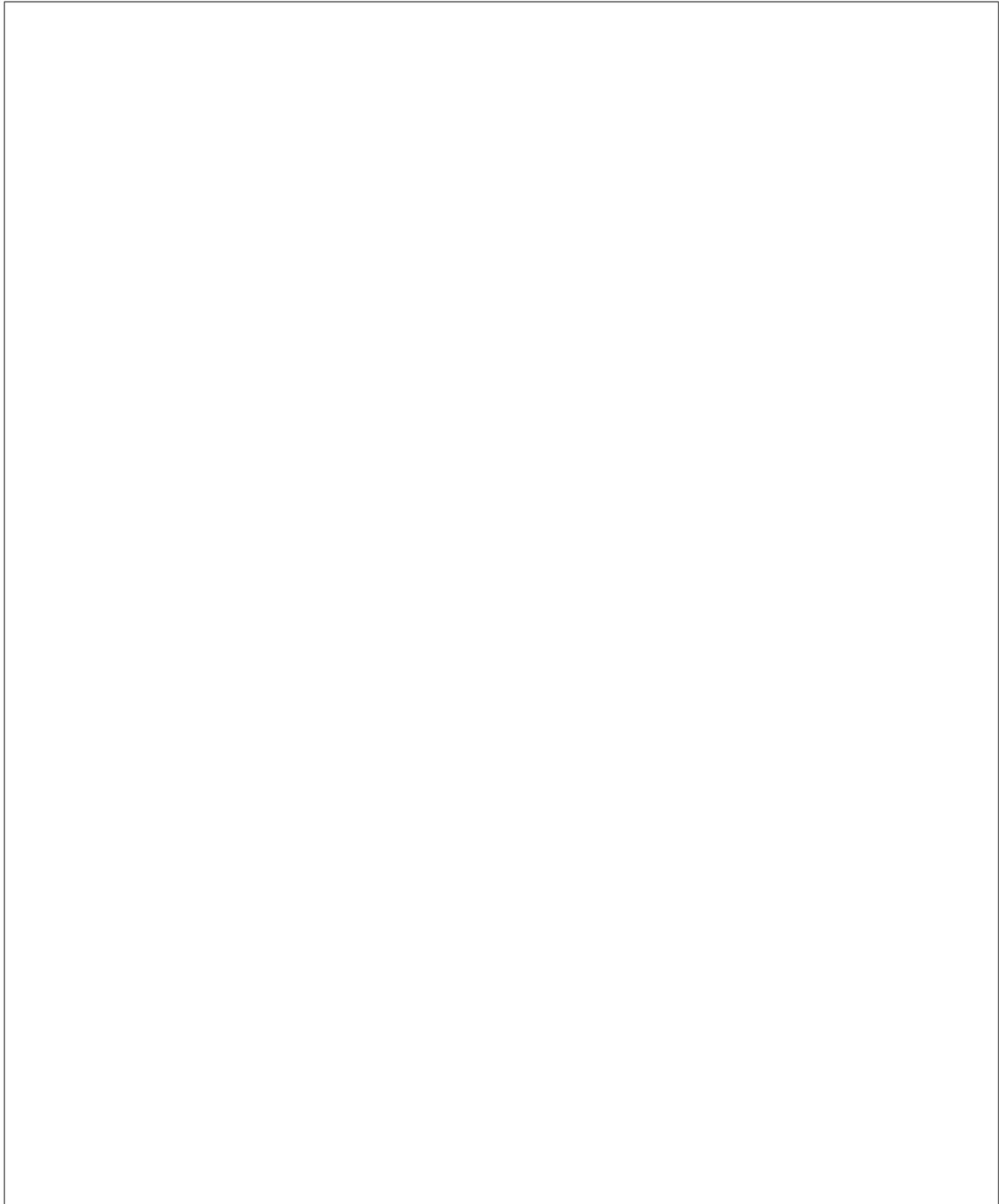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대회종료시까지 연차별 추진
- 교육대상 : 인천지역 대학교수, 교사, 공무원, 대학생 등
- 교육내용 : 스포츠관련강좌 직무, 스포츠 관련 외국어 등
- 교육기관 : 인하대학교 생활체육학과와 MOU 체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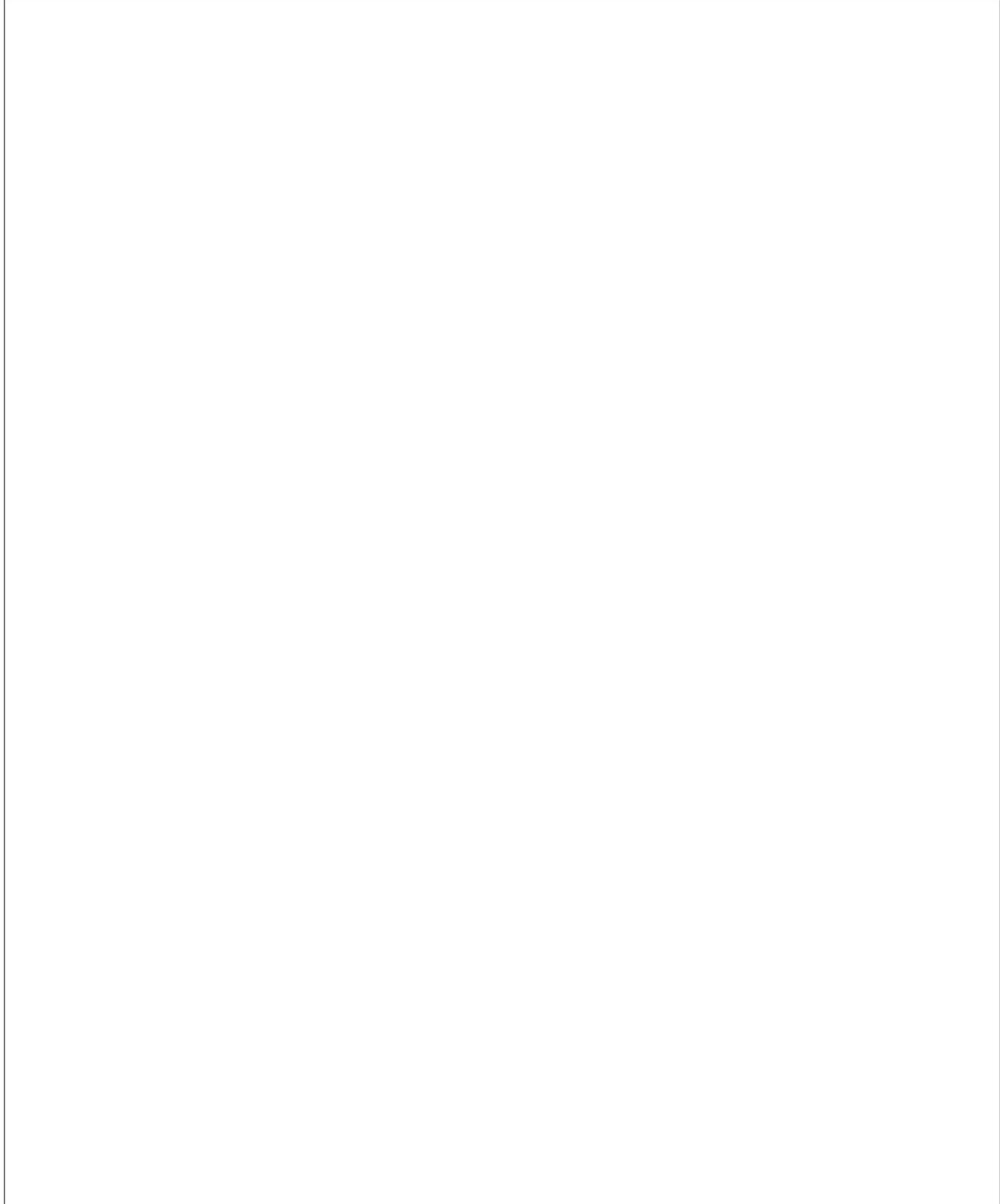
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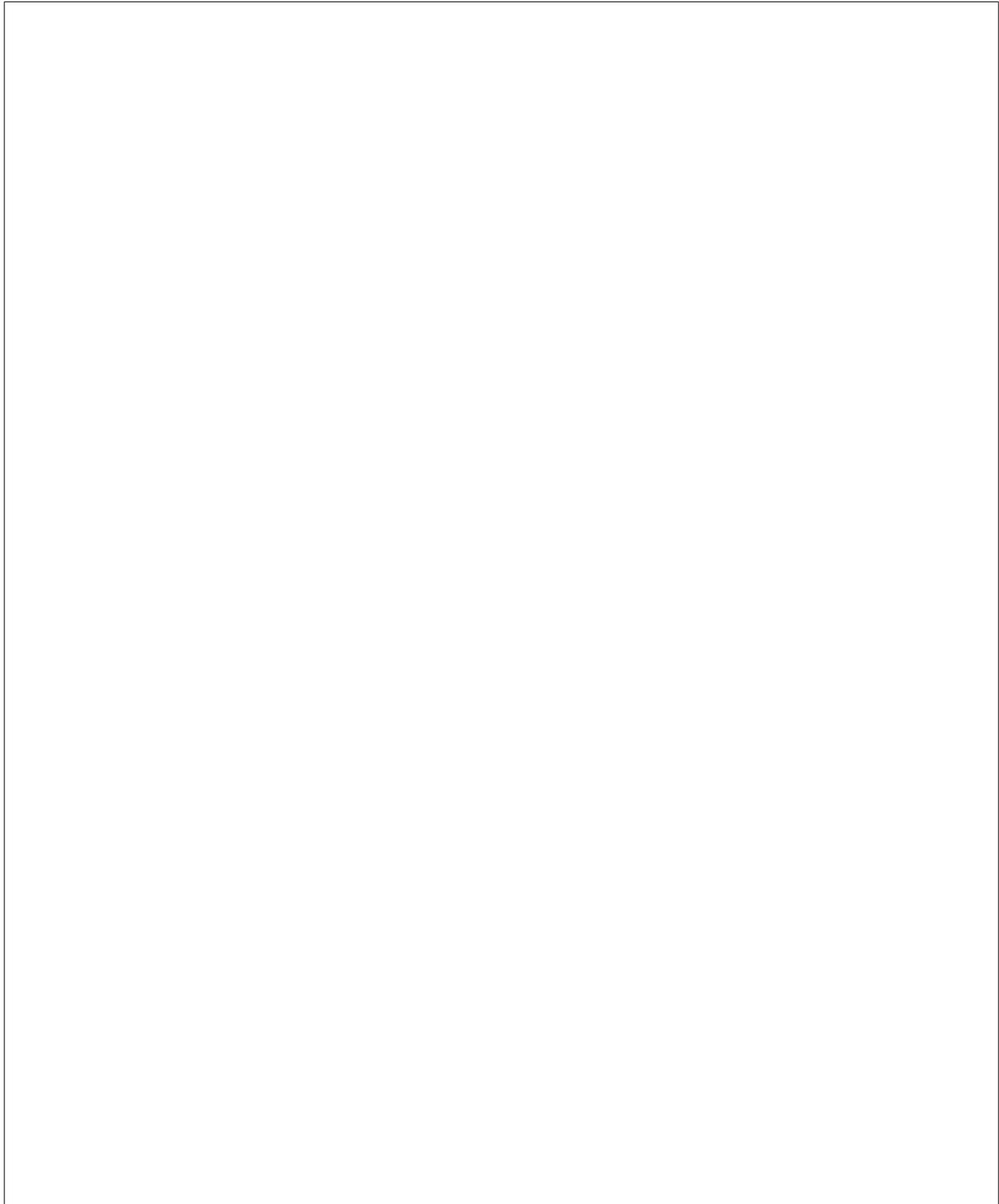
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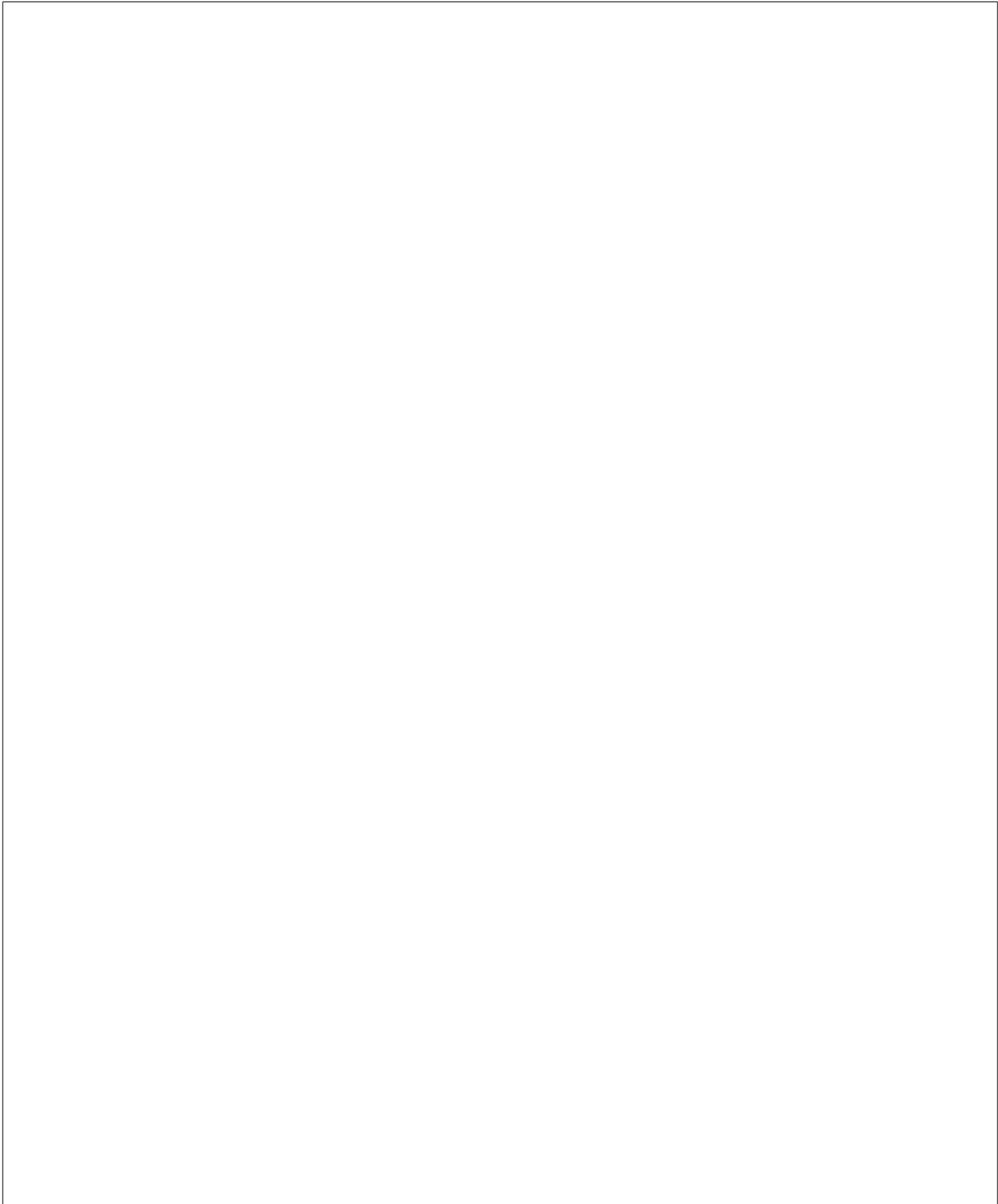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

